

장면 1. 마을 회의를 열다.

등장인물 : 해설, 촌장님, 마을 사람1, 마을 사람2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요즘 들어 호랑이의 습격이 자주 일어나 벌원리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소와 닭, 돼지 같은 가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졌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 댁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촌장 : 어험, 이거 큰일이오. 호랑이의 기세가 날로 등등해지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다들 의견을 말해 봅시다.

마을 사람 1 :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달에 저희 집 닭을 두 마리 물어가더니 아, 글썄 열흘 전에는 우리 집 재산 같은 돼지까지 물어갔지 뭐니까.

마을 사람 2 : 가축이면 다행이지요. 아이구... 글썄 저희 집은... 호랑이가 우리 막내를 물어가서....(엉엉 운다)

촌장 : 아이구, 큰일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 1 : 못된 짓 하는 호랑이를 잡아야지요. 약을 놓든, 활을 쏘든, 때려잡든 해야겠지요. 어떻게 잡을까요?

마을 사람 2 : 호랑이가 워낙 무서우니 직접 만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마을 사람 3 :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을 파서 호랑이가 빠지도록 허방다리를 팝시다.

다같이 : 그거 좋은 생각이오!

해설 : 이리하여 벌원리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다니는 주요 길목마다 커다란 허방다리를 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흙을 파내고 짚으로 덮어 누가 봐도 길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지요.

장면 1. 마을 회의를 열다.

등장인물 : 해설, 촌장님, 마을 사람1, 마을 사람2, 마을 사람3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요즘 들어 호랑이의 습격이 자주 일어나 벌원리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소와 닭, 돼지 같은 가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졌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 댁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촌장 : 어험, 이거 큰일이오. 호랑이의 기세가 날로 등등해지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다들 의견을 말해 봅시다.

마을 사람 1 :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달에 저희 집 닭을 두 마리 물어가더니 아, 글썄 열흘 전에는 우리 집 재산 같은 돼지까지 물어갔지 뭐니까.

마을 사람 2 : 가축이면 다행이지요. 아이구... 글썄 저희 집은... 호랑이가 우리 막내를 물어가서....(엉엉 운다)

촌장 : 아이구, 큰일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 1 : 못된 짓 하는 호랑이를 잡아야지요. 약을 놓든, 활을 쏘든, 때려잡든 해야겠지요. 어떻게 잡을까요?

마을 사람 2 : 호랑이가 워낙 무서우니 직접 만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마을 사람 3 :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을 파서 호랑이가 빠지도록 허방다리를 팝시다.

다같이 : 그거 좋은 생각이오!

해설 : 이리하여 벌원리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다니는 주요 길목마다 커다란 허방다리를 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흙을 파내고 짚으로 덮어 누가 봐도 길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지요.

장면 2. 빠져나온 호랑이, 그리고 소나무의 재판

등장인물 : 해설, 나그네, 호랑이, 장끼, 소나무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호랑이 : 어흥~~ 살려주세요!!! 어흥~~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소?

나그네 :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호랑이를 발견한다.)

호랑이 : 살려주세요. 내가 그저께 여기를 지나다가 발을 헛디더 이 허방다리에 빠지고 말았소. 제발 날 좀 꺼내 주시겠소?

나그네 : 호랑이야, 살려줄 수는 있지만... 살려주고 나면 니가 나를 그냥 두겠느냐? 그동안 배를 쫄쫄 굶었을 테니 나를 잡아먹겠다고 덤빌 터인데... 겁나서 못하겠구나.

호랑이 :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산중의 왕입니다요. 나그네님을 잡아먹는다면 제가 날벼락을 맞을 겁니다. 산중의 왕,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킬 터이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설 : 이 장면을 나무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장끼가 걱정스런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끼 : 나그네 아저씨, 호랑이를 구해주면 분명히 아저씨를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서둘러 갈 길 가세요.

나그네 : 꿩아, 꿩아, 멋지게 치장한 꿩아!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산중의 왕이라는 호랑이가 한 약속이니 믿어봐야겠다. 설마하니, 산중의 왕이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장끼 : 더는 말리지 못하겠네요. 허나, 나그네님 앞길에 호랑이의 괴롭힘이 있을 것이니 모쪼록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 : 나그네는 버려진 통나무를 구해 허방다리 안으로 비스듬히 걸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통나무를 올라타고 허방다리를 빠져나왔죠. (나그네가 호랑이를 구해주는 장면을 보여준다.)

호랑이 : 아이고, 살았다. 꼭~ 죽는 줄만 알았네. (기지개를 켜다가 배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무섭게 한다.) 산속의 왕인 나를 사람들이 허방다리를 파서 죽이려고 하다니! 사람인 너에게 죄를 물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나그네에게 덤비려고 한다.)

나그네 : 산속의 왕이신 호랑이께서 약속도 안 지키고, 은혜도 모르느냐? 우리끼리 다투어 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이에게 물어 보자꾸나. 열은 너무 많으니 아홉에게 물어보자.

해설 :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옆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소나무에게 물어 보기로 했지요.

소나무 : (한쪽 팔을 구부리고 부러진 가지를 표현한다.) 내 잘린 가지를 봐. 이게 바로 사람들 짓이야! 흰칠하게 잘 자고 있는 우리 나무들만 골라 집 짓고, 땀감으로 쓰고, 술 만들고... 너희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호랑이님, 어서 이 나그네를 잡아먹어서 우리의 한을 풀어주세요.

장면 2. 빠져나온 호랑이, 그리고 소나무의 재판

등장인물 : 해설, 나그네, 호랑이, 장끼, 소나무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호랑이 : 어흥~~ 살려주세요!!! 어흥~~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소?

나그네 :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호랑이를 발견한다.)

호랑이 : 살려주세요. 내가 그저께 여기를 지나다가 발을 헛디더 이 허방다리에 빠지고 말았소. 제발 날 좀 꺼내 주시겠소?

나그네 : 호랑이야, 살려줄 수는 있지만... 살려주고 나면 니가 나를 그냥 두겠느냐? 그동안 배를 쫄쫄 굶었을 테니 나를 잡아먹겠다고 덤빌 터인데... 겁나서 못하겠구나.

호랑이 :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산중의 왕입니다요. 나그네님을 잡아먹는다면 제가 날벼락을 맞을 겁니다. 산중의 왕,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킬 터이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설 : 이 장면을 나무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장끼가 걱정스런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끼 : 나그네 아저씨, 호랑이를 구해주면 분명히 아저씨를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서둘러 갈 길 가세요.

나그네 : 꿩아, 꿩아, 멋지게 치장한 꿩아!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산중의 왕이라는 호랑이가 한 약속이니 믿어봐야겠다. 설마하니, 산중의 왕이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장끼 : 더는 말리지 못하겠네요. 허나, 나그네님 앞길에 호랑이의 괴롭힘이 있을 것이니 모쪼록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 : 나그네는 버려진 통나무를 구해 허방다리 안으로 비스듬히 걸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통나무를 올라타고 허방다리를 빠져나왔죠. (나그네가 호랑이를 구해주는 장면을 보여준다.)

호랑이 : 아이고, 살았다. 꼭~ 죽는 줄만 알았네. (기지개를 켜다가 배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무섭게 한다.) 산속의 왕인 나를 사람들이 허방다리를 파서 죽이려고 하다니! 사람인 너에게 죄를 물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나그네에게 덤비려고 한다.)

나그네 : 산속의 왕이신 호랑이께서 약속도 안 지키고, 은혜도 모르느냐? 우리끼리 다투어 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이에게 물어 보자꾸나.

해설 :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옆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소나무에게 물어 보기로 했지요.

소나무 : (한쪽 팔을 구부리고 부러진 가지를 표현한다.) 내 잘린 가지를 봐. 이게 바로 사람들 짓이야! 흰칠하게 잘 자고 있는 우리 나무들만 골라 집 짓고, 땀감으로 쓰고, 술 만들고... 너희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호랑이님, 어서 이 나그네를 잡아먹어서 우리의 한을 풀어주세요.

장면 3. 멧돼지와 닭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멧돼지, 수탉, 암탉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나그네 : 어, 저기 멧돼지가 지나가네. 멧돼지에게도 물어보자구나.

호랑이 : 멧돼지야,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재판 좀 해다오. (이야기를 하는 시늉을 한다.)

멧돼지 : 호랑아, 네 말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파놓은 허방다리에 빠져 죽을 뻔 했으니, 나그네를 사람 대표로 삼아 잡아먹는 게 옳을 듯 하구나.

나그네 :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 멧돼지야.

멧돼지 : 아이고, 사람이라면 아주 끔찍하다구요! 사람 때문에 내 아내와 새끼들이 죽었던 말이오. 배고픈 내 새끼들이 뿔 좀 먹겠다고 코를 킁킁거리며 감자 밭을 좀 뒤졌기로서니 뿔을 놓아 죽이다니. 원통하고 원통하오!

호랑이 : 그렇다면 소나무와 멧돼지까지 내 편을 들었으니 이기고 있다.

나그네 : 저기 사람 사는 마을로 좀 내려가 보고 거기서도 의견을 물어보자구나.

(호랑이와 나그네는 길을 간다.)

수탉 : 꼬끼오~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에게 길러져 왔지. 사람이 모이를 주고, 채소밭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우리는 사람들 아침 시계도 되어 주었지.

암탉 : 꼬꼬꼬~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름이 곧 다가오잖아요. 우린 이제 다 죽었다구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번 찾아오는 복날마다 아직 어른 닭도 못된 우리 병아리들이 삼계탕으로 죽어간다고요!!

수탉 : 듣고보니 그렇구만. 맞아, 당신이 날마다 낳는 알들도 사람들이 가져가지?

암탉 : 그럼요~ 잡아먹으려고 병아리 깔 것만 찌꺼기 남기고 죄다 가져가서 날로 먹고, 부쳐먹고, 삶아먹고, 찌서 먹고... 불쌍한 우리 애기들...

수탉 :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도 사람에게 쌓인 게 많소. 호랑이 양반! 어서 이 사람을 잡아 먹으시오.

장면 3. 멧돼지와 닭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멧돼지, 수탉, 암탉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나그네 : 어, 저기 멧돼지가 지나가네. 멧돼지에게도 물어보자구나.

호랑이 : 멧돼지야,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재판 좀 해다오. (이야기를 하는 시늉을 한다.)

멧돼지 : 호랑아, 네 말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파놓은 허방다리에 빠져 죽을 뻔 했으니, 나그네를 사람 대표로 삼아 잡아먹는 게 옳을 듯 하구나.

나그네 :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 멧돼지야.

멧돼지 : 아이고, 사람이라면 아주 끔찍하다구요! 사람 때문에 내 아내와 새끼들이 죽었던 말이오. 배고픈 내 새끼들이 뿔 좀 먹겠다고 코를 킁킁거리며 감자 밭을 좀 뒤졌기로서니 뿔을 놓아 죽이다니. 원통하고 원통하오!

호랑이 : 그렇다면 소나무와 멧돼지까지 내 편을 들었으니 이기고 있다.

나그네 : 저기 사람 사는 마을로 좀 내려가 보고 거기서도 의견을 물어보자구나.

(호랑이와 나그네는 길을 간다.)

수탉 : 꼬끼오~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에게 길러져 왔지. 사람이 모이를 주고, 채소밭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우리는 사람들 아침 시계도 되어 주었지.

암탉 : 꼬꼬꼬~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름이 곧 다가오잖아요. 우린 이제 다 죽었다구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번 찾아오는 복날마다 아직 어른 닭도 못된 우리 병아리들이 삼계탕으로 죽어간다고요!!

수탉 : 듣고보니 그렇구만. 맞아, 당신이 날마다 낳는 알들도 사람들이 가져가지?

암탉 : 그럼요~ 잡아먹으려고 병아리 깔 것만 찌꺼기 남기고 죄다 가져가서 날로 먹고, 부쳐먹고, 삶아먹고, 찌서 먹고... 불쌍한 우리 애기들...

수탉 :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도 사람에게 쌓인 게 많소. 호랑이 양반! 어서 이 사람을 잡아 먹으시오.

장면 4. 황소와 염소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황소, 염소, 해설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나그네와 호랑이는 닭장이 있는 집을 나와 뒷산으로 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황소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요. 소에게 네 번째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그네 : 소야, 풀 뜯는 황소야. 도망이라도 칠까 봐 고삐를 매고 있는 황소야! 우리 사연을 듣고 재판을 좀 해다오.

호랑이 : 내가 사람들이 파 놓은 허방다리에 빠졌다가 죽을 뻔 했는데, 저 나그네가 살려주었소. 허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분하여 저 사람을 잡아 먹어야겠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황소 : 음~메~ 호랑이는 우리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나그네 : 옳거니! 그래서 호랑이가 잘못했다 이거구나!

황소 : 아니오, 사람들은 맨손일 때는 만만하지만, 도끼, 쟁기, 칼 이런 것만 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과 한집에서 오랜 시간 가족처럼 살아왔다지만, 우리는 송아지 때부터 코뚜레를 당하고 평생 농사일만 하다가 죽을 때도 고깃국 신세가 되니.. 에휴~ 저는 호랑이, 사람 둘 다 싫습니다!

해설 : 사람도 호랑이도 싫다는 황소를 뒤로 하고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는 가을걷이가 끝난 빈 밭 한구석에서 나뭇잎을 따 먹고 있는 염소를 만나 다섯 번째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나그네 : 염소양반, 우리 이야기 좀 듣고 재판 좀 해보시겠소?

염소 : 언제 봤다고 양반이라고 그러시는게요? 매에~매에~ 운다고 경박스럽다고 핀잔할 때는 언제고!

호랑이 : 화 좀 가라앉히시고 이야기 좀 들어 보시오. (이야기 하는 시늉)

염소 : 이야기 다 소용 없고! 인간들이 우리 염소 무시하는 거 하루 이틀이오? 울음 소리가 경박스럽다, 깡충깡충 뛰는 게 방정맞다, 하면서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잡아서 약해 먹지 않습니까? 호랑이님, 저 사람 어서 잡아 드시오! 매에에~~~~

장면 4. 황소와 염소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황소, 염소, 해설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나그네와 호랑이는 닭장이 있는 집을 나와 뒷산으로 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황소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요. 소에게 네 번째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그네 : 소야, 풀 뜯는 황소야. 도망이라도 칠까 봐 고삐를 매고 있는 황소야! 우리 사연을 듣고 재판을 좀 해다오.

호랑이 : 내가 사람들이 파 놓은 허방다리에 빠졌다가 죽을 뻔 했는데, 저 나그네가 살려주었소. 허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분하여 저 사람을 잡아 먹어야겠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황소 : 음~메~ 호랑이는 우리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나그네 : 옳거니! 그래서 호랑이가 잘못했다 이거구나!

황소 : 아니오, 사람들은 맨손일 때는 만만하지만, 도끼, 쟁기, 칼 이런 것만 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과 한집에서 오랜 시간 가족처럼 살아왔다지만, 우리는 송아지 때부터 코뚜레를 당하고 평생 농사일만 하다가 죽을 때도 고깃국 신세가 되니.. 에휴~ 저는 호랑이, 사람 둘 다 싫습니다!

해설 : 사람도 호랑이도 싫다는 황소를 뒤로 하고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는 가을걷이가 끝난 빈 밭 한구석에서 나뭇잎을 따 먹고 있는 염소를 만나 다섯 번째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나그네 : 염소양반, 우리 이야기 좀 듣고 재판 좀 해보시겠소?

염소 : 언제 봤다고 양반이라고 그러시는게요? 매에~매에~ 운다고 경박스럽다고 핀잔할 때는 언제고!

호랑이 : 화 좀 가라앉히시고 이야기 좀 들어 보시오. (이야기 하는 시늉)

염소 : 이야기 다 소용 없고! 인간들이 우리 염소 무시하는 거 하루 이틀이오? 울음 소리가 경박스럽다, 깡충깡충 뛰는 게 방정맞다, 하면서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잡아서 약해 먹지 않습니까? 호랑이님, 저 사람 어서 잡아 드시오! 매에에~~~~

장면 5. 곰과 여우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곰, 여우, 해설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둘은 다시 재판을 받으러 숲길을 갔습니다. 너럭바위 밑에서 낮잠을 자던 곰이 이 둘의 말씨름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일어난 김에 이들의 여섯 번째 재판관을 자처했지요.

나그네 : 곰아,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을 터이니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보거라.

호랑이 : 여기 앉아계신 곰은 나와 산중의 왕을 겨루는 용맹한 동물임에도 사람에게 이래저래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라 생각하오. 부디 바른 재판을 해주시오.

곰 : 나그네는 들어라. 너희 사람은 우리를 잡아 쓸개를 꺼내 약으로 쓰고, 가죽은 벗겨 깔개로 쓰니 우리의 적이로다. 그뿐이냐. 우리를 가리켜 멍청하다느니, 느려터지다느니 비아냥거리지. 허나 우리 곰이 얼마나 똑똑하고 날렵한지 보여주겠다. (호랑이의 수염을 낚아챈다.)

호랑이 : 아이구, 내 수염! 언제 뽑아갔대요?

곰 : 이것 보아라.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다는 호랑이 수염이 내 손에 있다. 호랑이야, 산중의 왕은 나에게 양보하고, 어서 이 나그네를 잡아먹어라.

해설 : 수염이 뽑혀 턱이 아픈 호랑이와 자꾸만 재판에 저서 우울해진 나그네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곰과 헤어져 언덕길을 오르니 다리도 아프고, 한낮 따가운 가을볕에 땀도 쏟아졌지요.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여우 :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 좋게 붙어 다녔나? 살다보니 벌꿀을 다 보는군!

나그네 : 다 사연이 있어 그렇다오. 우리 이야기 좀 들어 보겠소? (이야기 하는 시늉)

여우 : 다른 말은 할 거 없고, 나그네 양반, 사람들이 우리 여우더러 뭐라 하는지 아시오? 여우짓 한다, 불여우 같다. 이러면서 온갖 안좋은 행동에는 여우에 빗대지.

호랑이 : 그렇지~ 나도 그 말 들은 적 있어.

여우 : 그뿐이야? 우리 가죽과 털로 겨울에 입을 옷이나 목도리를 만들려고 마구잡이로 사냥을 하잖아.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호랑아! 나그네를 잡아 먹어!

장면 5. 곰과 여우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곰, 여우, 해설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둘은 다시 재판을 받으러 숲길을 갔습니다. 너럭바위 밑에서 낮잠을 자던 곰이 이 둘의 말씨름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일어난 김에 이들의 여섯 번째 재판관을 자처했지요.

나그네 : 곰아,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을 터이니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보거라.

호랑이 : 여기 앉아계신 곰은 나와 산중의 왕을 겨루는 용맹한 동물임에도 사람에게 이래저래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라 생각하오. 부디 바른 재판을 해주시오.

곰 : 나그네는 들어라. 너희 사람은 우리를 잡아 쓸개를 꺼내 약으로 쓰고, 가죽은 벗겨 깔개로 쓰니 우리의 적이로다. 그뿐이냐. 우리를 가리켜 멍청하다느니, 느려터지다느니 비아냥거리지. 허나 우리 곰이 얼마나 똑똑하고 날렵한지 보여주겠다. (호랑이의 수염을 낚아챈다.)

호랑이 : 아이구, 내 수염! 언제 뽑아갔대요?

곰 : 이것 보아라.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다는 호랑이 수염이 내 손에 있다. 호랑이야, 산중의 왕은 나에게 양보하고, 어서 이 나그네를 잡아먹어라.

해설 : 수염이 뽑혀 턱이 아픈 호랑이와 자꾸만 재판에 저서 우울해진 나그네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곰과 헤어져 언덕길을 오르니 다리도 아프고, 한낮 따가운 가을볕에 땀도 쏟아졌지요.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여우 :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 좋게 붙어 다녔나? 살다보니 벌꿀을 다 보는군!

나그네 : 다 사연이 있어 그렇다오. 우리 이야기 좀 들어 보겠소? (이야기 하는 시늉)

여우 : 다른 말은 할 거 없고, 나그네 양반, 사람들이 우리 여우더러 뭐라 하는지 아시오? 여우짓 한다, 불여우 같다. 이러면서 온갖 안좋은 행동에는 여우에 빗대지.

호랑이 : 그렇지~ 나도 그 말 들은 적 있어.

여우 : 그뿐이야? 우리 가죽과 털로 겨울에 입을 옷이나 목도리를 만들려고 마구잡이로 사냥을 하잖아.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호랑아! 나그네를 잡아 먹어!

장면 6. 사슴과 토끼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사슴, 토끼, 해설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나그네와 호랑이는 물길을 거슬러 폭포 가까이 갔어요. 폭포 근처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나그네에게 말을 걸었지요.

사슴 : 나그네 아저씨, 나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데려왔나요? 우리는 사람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보약이라고 뽕 잘라 달여 먹고, 산 채로 잡아 피를 뽑아 마시고, 가죽은 가죽대로 벗겨서 쓰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네! (화가 난 듯이 바닥을 발로 쿵쿵 치며 날뛴다.)

나그네 : 아이구... 이렇게 미안할 수가. 제가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 드립니다. 용서하세요.

호랑이 : 그럼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너를 잡아먹을 차례다!

나그네 : 아니다, 아직 여덟 번째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

해설 : 나그네와 호랑이는 돌고 돌아 처음 허방다리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마지막 재판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재판관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무 뒤에서 나타난 토끼에게 들은 사연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토끼 : 호랑이 아저씨,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 허방다리에 갇혔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야 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가 보실래요?

호랑이 : 으흠~ 그렇지. (허방다리 안으로 들어가는 시늉을 한다.) 자, 내가 이렇게 허방다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 사람들이 파놓은 허방다리에 이렇게 불쌍하게 빠진 거란다.

토끼 : 그래요? 잘 보았어요. 급하면 덩치에 안 어울리게 달콤한 거짓말이나 내뱉고, 은혜도 모르고 잡아 먹으려고 덤비니.. 아저씨가 스스로 산중의 왕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네요. 거기서 계속 계세요!

나그네 : 아이구, 이렇게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주어서 고맙다. 호랑이를 제발로 허방다리에 들어가게 하니 어찌나 지혜로운지 감탄이 절로 나는구나! (큰 절을 한다.)

토끼 : 나그네 아저씨, 어찌 호랑이를 구해주셨어요? 허방다리를 뺏을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나그네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이해하겠으나, 그 마음 씩씩이 부디 숲속의 평화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해가 짧으니 부지런히 갈 길 가시어요.

해설 : 토끼의 멋진 재판으로 목숨을 건진 나그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빠져나갔어요. 나그네 뒤로 호랑이의 때늦은 후회가 담긴 울음이 찌렁찌렁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장면 6. 사슴과 토끼의 재판

등장인물 : 나그네, 호랑이, 사슴, 토끼, 해설

(내가 맡은 역할에 동그라미 하고, 대사에 형광펜으로 표시 하세요.)

해설 : 나그네와 호랑이는 물길을 거슬러 폭포 가까이 갔어요. 폭포 근처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나그네에게 말을 걸었지요.

사슴 : 나그네 아저씨, 나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데려왔나요? 우리는 사람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보약이라고 뽕 잘라 달여 먹고, 산 채로 잡아 피를 뽑아 마시고, 가죽은 가죽대로 벗겨서 쓰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네! (화가 난 듯이 바닥을 발로 쿵쿵 치며 날뛴다.)

나그네 : 아이구... 이렇게 미안할 수가. 제가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 드립니다. 용서하세요.

호랑이 : 그럼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너를 잡아먹을 차례다!

나그네 : 아니다, 아직 여덟 번째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

해설 : 나그네와 호랑이는 돌고 돌아 처음 허방다리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마지막 재판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재판관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무 뒤에서 나타난 토끼에게 들은 사연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토끼 : 호랑이 아저씨,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 허방다리에 갇혔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야 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가 보실래요?

호랑이 : 으흠~ 그렇지. (허방다리 안으로 들어가는 시늉을 한다.) 자, 내가 이렇게 허방다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 사람들이 파놓은 허방다리에 이렇게 불쌍하게 빠진 거란다.

토끼 : 그래요? 잘 보았어요. 급하면 덩치에 안 어울리게 달콤한 거짓말이나 내뱉고, 은혜도 모르고 잡아 먹으려고 덤비니.. 아저씨가 스스로 산중의 왕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네요. 거기서 계속 계세요!

나그네 : 아이구, 이렇게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주어서 고맙다. 호랑이를 제발로 허방다리에 들어가게 하니 어찌나 지혜로운지 감탄이 절로 나는구나! (큰 절을 한다.)

토끼 : 나그네 아저씨, 어찌 호랑이를 구해주셨어요? 허방다리를 뺏을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나그네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이해하겠으나, 그 마음 씩씩이 부디 숲속의 평화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해가 짧으니 부지런히 갈 길 가시어요.

해설 : 토끼의 멋진 재판으로 목숨을 건진 나그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빠져나갔어요. 나그네 뒤로 호랑이의 때늦은 후회가 담긴 울음이 찌렁찌렁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